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호 [루체 제22982호] 주제99 (2010)년 1월 30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재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종합된 자  
료에 의하면 전국의 근로자  
들에게 평지를 보면 김책제  
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울해에 들어와 첫 20일 남  
짓한 기간에 지난해 같은 시  
기보다 선별생산을 3배로  
증강시키고 강철과 압연강재  
생산을 크게 늘리었다.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려  
는 김철로동계급의 투자를  
각지 금속공장들의 로동  
계급도 첫 전투에서부터 뚜  
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  
화를 계속 추구하고 내달려  
는 강선의 로동계급은 요즘  
강철생산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압연  
강재 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다. 황해  
도로 공장을 재령광산에서도  
온통 광산과 재령광산에서도  
이달에 높은 생산실적을 기  
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철공업은 인민경제의  
기초공업부문이며 경제강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전조  
선의 하나님입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울해  
의 총공세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기 위하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은 첫 전투를 위한 작  
전을 주도세밀하게 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 하여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통성식료공장 종업원들의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현지 말씀은 인민생활향  
상을 위한 대고조전선에 떨  
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모임  
이 28일과 29일 평양밀  
가루가공장, 통성식료공  
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은 최근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란  
식료일용품공장 부장, 관계  
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밀가루가공장 종업  
원들의 모임에서는 초급당비  
서 박남님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으로 원철, 직장장 김  
영일, 로동자 정성우 토

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  
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  
복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  
군길을 이어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기술경기대회와 생  
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도래하  
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  
에 헌신한 힘을 넣으며 원

을 넣으려고 있다.

달한다.

삼관련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체의 힘  
으로 수백대의 풍력발전기  
를 제작하여 기류조건이 좋  
은 곳들을 설치함으로써 온  
이 나게 하고 있다.

량감, 마두, 초정리에서

는 농장원들에게 풍력에 의  
한 전력생산의 우수성과 기  
술판례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려주어 발전기리용  
물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천리를 비롯한 여러 농  
장원에서도 성능이 좋은 발  
전기들의 제작설치를 다그치

고 있다.

고내여러 단위들에서 많  
은 풍력발전기를 제작하고  
있다.

농군기계작업소와 철제일  
용품공장의 기술자, 로동자  
들은 종전보다 출력이 높고  
강치들의 정밀도가 보장된

다.

고 있다.

# 어버이수령님의 네원 꽂피우는 불멸의 장정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 할 대변혁의 해로 빛날 주제 99 (2010) 년!

승리의 크나큰 궁지와 사랑을 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영웅적 군대와 인민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속에 새해 첫날의 마지막날들이 장엄하게 흘러가고있다.

희천발전소건설장과 재령광산, 평양밀가루공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한달도 뜯는 사이에 또 한 걸음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번영의년대를 펼치며 흘러간 이 날과 날들의 의의를 헤아려 볼수록 가슴에 뜨거운 경쟁의 파도가 일렁인다.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경고걸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그길에 수놓아진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더욱 드겁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냉철하신 시민으로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기여한 애오사시려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철석같은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풍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한걸음을 걸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그길을 따라!

하나의 창조물은 일떠세워도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대로!

이것은 불변불후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파악하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조이며 필생의 좌우명이다.

새해두희 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응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거창하게 솟아오르는 언제를 보시고

우리 장군님 그리고 만족해하신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었던가.

당 제 5차대회와 제 6차대회 보고, 결정 등에 밝혀져있듯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고 나라의 전기화를 다그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고 담원이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임금회의 회를 지도하신 일지 못할 그날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심증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혁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종전 같으면 심이니상 걸려야 할 방대한 대규모 발전소건설을 불과 몇 해 사이에 끌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며 희천발전소의 전체 건설자들에게 특별감사까지 주신 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

에서 나서는 가장 척박적인 파업인 동시에 수령님의 유훈을 관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여도,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 서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마음속은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우리 수령님께서 계신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술이면 얼마 전 평양밀가루공장을 찾으시여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공장이 대규모의 식료가공기로 전변되었

다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생

쟁히 들려오는듯싶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얼마나 심장을 불태우시였으면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도처에 수많은 식료품생산기지들을 구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시였다고, 이

공장들에 대한 기술개선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게 다틱하고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대량으로서 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명성으로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비약을 이룩나가자.

이 신념, 이런 의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온 한 해에도 초강도 강행군을 하신 것 아니었던가.

주제 98 (2009) 년을 조국청사에 특기 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에 끌려온 청진국적 전환의 해로, 이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 활동일력을 미주하면 저도모르게 눈물이 뜰겁게 고여오른다.

쏟아지는 무더기비도, 삼복의 뢰약별도 가지지 않으셨으나마,

하늘아래 첫 일溲도 찾으셨고 지하막장에도 서슴없이 들어가시였

여기에서 죄들이 이글거리는 로앞에도 서시고 화력발전소의 현장도 일죽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찾으신 곳마다에서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고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더욱 활짝 꽂피우실 찬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공장이 대규모의 식료가공기로 전변되었

다고, 수령님의 불灭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생

졌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두렷이 확증된 백승의 진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파정에서 언제나 사상론을 주장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 모두를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업을 전진시키며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열쇠가 있다.》

주제 94 (2005) 년 2월 어느날이었다.

당 및 군대, 국가의 책임임금들과 차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원들

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프락포트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무산광산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안주지구란평련합기업소, 단천마그네샤공장, 평양방직공장, 문천시문천중학교, 운산공구공장, 안악군오국동농장, 수풍발전소 등 많은 단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사적단위들이었다. 가시는 곳마다 김일성민족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시고 천만군민을 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명성으로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한달도 뜯는 사이에 또 한 걸음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번영의년대를 펼치며 흘러간 이 날과 날들의 의의를 헤아려 볼수록 가슴에 뜨거운 경쟁의 파도가 일렁인다.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경고걸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그길에 수놓아진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더욱 드겁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냉철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임금회의 회를 지도하신 일지 못할 그날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도처에 수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보느라면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난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미로운 민족들이 세상에 부럽지 않아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며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명성으로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한달도 뜯는 사이에 또 한 걸음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번영의년대를 펼치며 흘러간 이 날과 날들의 의의를 헤아려 볼수록 가슴에 뜨거운 경쟁의 파도가 일렁인다.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경고걸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그길에 수놓아진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더욱 드겁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냉철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임금회의 회를 지도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도처에 수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보느라면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난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미로운 민족들이 세상에 부럽지 않아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며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명성으로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한달도 뜯는 사이에 또 한 걸음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번영의년대를 펼치며 흘러간 이 날과 날들의 의의를 헤아려 볼수록 가슴에 뜨거운 경쟁의 파도가 일렁인다.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경고걸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그길에 수놓아진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더욱 드겁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냉철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임금회의 회를 지도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도처에 수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보느라면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난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미로운 민족들이 세상에 부럽지 않아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며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고 거듭 말씀하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명성으로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내 나라, 내 조국은 한달도 뜯는 사이에 또 한 걸음 크게 진전하였다.

새로운 번영의년대를 펼치며 흘러간 이 날과 날들의 의의를 헤아려 볼수록 가슴에 뜨거운 경쟁의 파도가 일렁인다.

지난해에 이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경고걸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그길에 수놓아진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더욱 드겁게 절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냉철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임금회의 회를 지도하신 일지 않으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전력문제를 뚫는것이었으니 새해 정초에서 아 할 곳 않고 많았으셨지만 제일 먼저 찾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애말로 수령님의 유훈 판결의 성스러운 자자후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국도처에 수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보느라면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장군님의 모습이 송엄하게 안겨와 눈시울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난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미로운 민족들이 세상에 부럽지 않아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며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넘원을 기어이 풀어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 총공세의 요구에 맞는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

덕천지구 탄광련합 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새해 공동사업과 김철로 동계 내금의 편지를 받아온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금속작업장을 찾은 밤과 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리고 체탄장들에서는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고 있다.

어느 탄광, 어느 막장에 들어보아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양된 증산열기로 풍부로 느낄 수 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들의 신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환희의 그날이 벌써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분의 노동경쟁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들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합니까.』

혁명적 고조의 척후인 지난 해에 힘있게 일군과 전투력을 백배로 강해졌다. 새 탄광들과로 친구들이 수많이 조업되어 확보보량이 늘어나고 운반능력이 종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힘있게 일군소아래 보장기지들에서는 베아령과 경질합금도 생산하고 있다.

현 힘있게 일군소에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대고조의 승리가 보다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올해 전투

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세웠다.

당장건 650t을 맞으며 넘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것, 이것이 힘있게 일군과 함께 벌어지는 제남

탄광 8경으로 내려갔다.

높이 세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증산들각투쟁의 앞장에는 힘있게 일군들이 서 있다.

올해 경성대 국건설제 전의 총격방향과 수행방도를 뚫렸다.

이 밝혀준 공동사업의 철구구

절에서 전진과 비약의 열쇠를 찾았던 이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둘으로써 모든 탄진들이 증산으로 세차게 풀어번지게 하였다.

새해부로부터 제남탄광 8경 새 구역개발공사의 진격로를 보았듯이 수령은 한가지 사실을 놓고 일군들의 전투적 정신을 새롭게 풀어놓았다.

일군들은 탄광의 생산전망을 하루빨리 열어놓기 위해 맘홀려 일하는 돌격대원들을 고무해 주면서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갔다.

개발구역을 빠짐없이 밟아보고 탄광일군들과 도면을 펼쳐놓고 진지한 투로는 거듭하는 과정에 그들은 올해 말까지 꿈꾸었으며 전진과 함께 일군들을 비롯한 전부들이 함께 한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들이고 있다.

현 힘있게 일군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한개 중대식 말고 내려가 청탁지도와 기술지도를 일관되게 하면서 탄부들과 함께 한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정상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현 힘있게 일군소에서는 대중의 열

의가 더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체란

투작전을 수립하는 힘있게 일군

소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덕

천란광의 사업을 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새해전

투작전에 수령님께서는

</

#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한생을 살리

희천사남새 및 식료품수매 관리소 지배인 한명희 등 무

9년전 볼 어느 날이었다. 회천시 남새 및 식료품수매 관리소의 정부문으로 한 젊은 너성녀가 어섰다. 시의 어느 한 기관에서 부원으로 일하다가 판리소지배인으로 임명된 한명희동무였다.

(서른세 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파연 한계 단위 일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머리 속에서 맨드는 생각은 좀처럼 떠날 줄 몰랐다. 고난의 혼적이 가서지지 못한 판리소와 여러 상점들을 돌아볼 수록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에게 시의 책임임 굳이 달하였다.

《용기 내시오. 동무야 제대 군인이 아니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일관을 벌린다면 인민의 참된 봉사자!》

한명희동무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 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긍지로운 일인가. 잊지 못할 군사복무의 나날에 친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본래 있게 일하여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될 결심이 심장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었다.

《임급들에게 있어서 보람 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밀음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한명희동무는 일찍이 희천땅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시민들에 대한 남새공급사업을 잘할 때 대한 가르침의식을 주시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면 이렇게 냉듯 남새 문제에 깊이 관심 하시었으랴.)

그는 봉사자들과 함께 시인의 여러 지구와 주민들의 가정에도 찾아가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었다. 그는 일부 불합리한 공급체계를 대담하게 비로소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는 최적 철, 조준에 동물들과 함께 남새 공급조직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수원들의 역할을 높여 고기와 남새, 갖가지 산나물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하였다.

한 명 희동 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나가신 서문파일에 남새 상점을 본보기로 활용하여 판리소아래 모든 봉사단위들의 사업을 추켜세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었다. 그의 결심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몇 해 전 판리소아래 한식당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는 문제를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부 주민들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시작하였는데 파연 판리소의 힘으로 해낼 수 있겠는가. 아마 어려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체나를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세트, 강재를 비롯한 모든 재료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너성이 대해서 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면 뱡동설비를 새로 설치하여 하루에 주민들이 미리를 기울여릴 만도 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지에는 드립이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한 일인데 어릴 때 있어도 해야 합니다.」 그는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었다. 짧은 기간에 기초가 다져지고 건물골조가 쑥쑥 울라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하게 벌어지는 공사의 앞장에는 언제나 한명희동무가 서 있었다. 판리소의 전현사업을 품보아하고 어려운 일들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깊이 품어주었다.

종업원들이 저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하면서 떨쳐나섰다. 대중이 발동되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 러문육, 김평일동 무를 먹고나섰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일로는 봉사자들의 가슴을 끌어올려주었다.

한명희동무는 차마다 창발작의 견을 제기

# 통일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울어는 혁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00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새해 공동사설은 6·15 공동선언발표 10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벽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은 우리 겨레의 심장마다에 통일애국의 의지와 열정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민족의 냉이 있고 애국의 심장이 높뛰는 조선사람이라면 어찌 이 호소에 끌리지 않을까?

우리 겨레는 간절한 통일원원을 안고 민족분렬 65년이 되는 2010년에 들어섰다. 분열의 고통이 또한 불길의 흐름으로 새겨져게 된 것은 통한 할 일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민족분열과 고통으로 우리 겨레가 당하는 물질적, 정신적피해는 이루 아낄수 없다. 조국통일은 온 겨레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민족사적재화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업무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사적사변이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고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운동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는 속에 온 민족의 통일기운은 전례없이 높아졌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용납하는 기초우민족적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제시되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낫은 단계의 협력체제안과 남측의 협력체제안과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겨레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의 낫은 단계의 협력체제안과 남측의 협력체제안과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에게 있어서 옳은 통일방법으로 새겨져 있다. 우리 겨레는 이 뜻깊은 낫을 앞두고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의 낫을 높여나가는 통일기운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도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낫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을 거세밀살하려고 사회를 파괴의 빙무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반통일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광작적전횡의 막수들이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핵심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지어 그것이 광작과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업종한 낫을 높여나가면서 전민족적벽위에서 통일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을 빛내이는 것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여는 해로 정식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이 혁사적인 기념일들을 맞으며 전민족적벽위에서 자주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운동의 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은 온 겨레

가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취하여야 하는 전민족적위업이다. 전민족적행위에서 자주통일기운이 고조될 때 더욱 많은 민족성원들이 통일운동의 담당자로서의 자기들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통일성전에 너도나도 멀쳐나설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의 력량은 민족의 통일기운이 고조될 때 실질적인 통일운동성과들이 이루어지며 그 성과에 고부되어 민족의 통일기운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혁사적으로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기운을 세계로 둘러싸워하면서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 행동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도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낫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을 거세밀살하려고 사회를 파괴의 빙무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반통일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광작적전횡의 막수들이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핵심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지어 그것이 광작과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업종한 낫을 높여나가면서 전민족적벽위에서 통일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것 부서버리지 못한다면 파쑈폭압은 더욱 광범위로 확장된다. 그에 맞아 우리 겨레의 각당, 각파, 협력, 단합을 중요제제로 내세우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드려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민족성원들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전진시키기 위해 전민족적행위에서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적극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벌려나가야 한다. 한편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을 반대하는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걸친다. 폭로 단죄하고 그것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민족성원들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전진시키기 위해 전민족적행위에서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적극 주장하는 민간단체들에 까지 빼치고 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것 부서버리지 못한다면 파쑈폭압은 더욱 광범위로 확장된다. 그에 맞아 우리 겨레의 각당, 각파, 협력, 단합을 중요제제로 내세우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드려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 우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이와 어울리지 않게 북남관계는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민족의 회화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업종한 낫을 높여나가면서 전민족적벽위에서 통일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것 부서버리지 못한다면 파쑈폭압은 더욱 광범위로 확장된다. 그에 맞아 우리 겨레의 각당, 각파, 협력, 단합을 중요제제로 내세우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드려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높여야 한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을 빛내이는 것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여는 해로 정식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이 혁사적인 기념일들을 맞으며 전민족적벽위에서 자주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운동의 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은 온 겨레

의 반통일대결정책에 의

해 북남협력사업들이 중단됨으로써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는 흐려졌다. 남조선호전평들의 무모한 북침도발행위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절개 떠돌고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높아지는 것은 전쟁위험이다.

우리 겨레는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전민족적행위에서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적극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벌려나가야 한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혁사적으로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기운을 세계로 둘러싸워하면서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 행동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도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낫로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기운을 거세밀살하려고 사회를 파괴의 빙무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반통일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광작적전횡의 막수들이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핵심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지어 그것이 광작과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업종한 낫을 높여나가면서 전민족적벽위에서 통일운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것 부서버리지 못한다면 파쑈폭압은 더욱 광범위로 확장된다. 그에 맞아 우리 겨레의 각당, 각파, 협력, 단합을 중요제제로 내세우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드려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민족성원들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전진시키기 위해 전민족적행위에서 민족의 회화와 협력, 단합을 적극 주장하는 민간단체들에 까지 빼치고 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것 부서버리지 못한다면 파쑈폭압은 더욱 광범위로 확장된다. 그에 맞아 우리 겨레의 각당, 각파, 협력, 단합을 중요제제로 내세우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드려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높여야 한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을 빛내이는 것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여는 해로 정식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이 혁사적인 기념일들을 맞으며 전민족적벽위에서 자주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운동의 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은 온 겨레

의 반통일대결정책에 의

고, 앞으로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그 어떤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면모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원수령님께서는 그 철학 비슷한 속에서도 몇 시간을 내시여 김성락목사를 접견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목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의 건국혁명사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제시해주시었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조선과 북과 남이 통일을 위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은 나라의 자주통일위업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정녕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로써 북남사회의 대회의 문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편복화해, 자주통일의 길에 적극 나설수 있게 되었다.

## 반제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중요담보

새해에 들어선 지금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리고 있다.

정세가 복잡한 지역의 나라들도, 세계경제위기의 피해를 입고있는 나라들도, 물건에 어떻게 해서나 부당하게 난관과 도전들을 이겨내고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확고한 결심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많은 발전도상나라 지도자들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새해의 투정목표와 과업들에는 자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그 나라 인민의 굳은 결의와 의지가 어려웠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루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시키고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게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해야 하며 국가 관리, 경제판리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모든 일에서 언제나 선차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풀어주고나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제투쟁을 중도반단합이 없이 출기 차게 벌리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떠나서는 혼자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이 단위로 하여 살아간다. 외세에 자주권을 빼앗았지만 경제적발전과 번영은 고사하고 나라를 잊게 되며 인민들은 식민지노예로 된다.』

자주적인 민으로 살며 발전해나가기 식민지노예로 된다.

###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

말파공산당이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차회담의 척결과 실체는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

제재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신뢰 조성을 위한 조치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압력과 위협공갈을 악랄하게 틀어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화살은 반제 정신이 강하고 자주적지향이 높은 나라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자주적화업수 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나라들만 제거되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빼앗는데 유리한 조건이 자주적국방력을 풀어놓아 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은 자기 힘을 부단히 강화하는데 있다. 인민들은

반제투쟁의 기치밑에 풀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허리를 풀라면서 라도 자주적국방력을 풀어놓아 다져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힘을 굽게

믿는 것이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인민은 폐하고 암다. 방대한 군사

력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일으

킨 전쟁에서 크게 싸워보지도 못하

고 끝부하여 치욕을 당하고 있는 나

의 실태가 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책동

을 짓부시는 것은 자주적인 민으로 살

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형식상 다른

나라들이 자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면

서 실지로는 저들이 마음대로 좌우

지하는 신식민지를 늘여나가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길만이 발전과 번영을 이루 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적으

로 나가는 나라들에 정치군사적 압력

과 경제적제재를 들이면서 저들의

『처방』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

다.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은 실지

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사회제도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변질시키거나 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의 『처방』과 『원조』와 같은 것은 눈길을 돌리면서 그에 순을 내미는 것은 호박을 쓰고 태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 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은 자기 힘을

놓았는데 그에 순을 내미는 것은 호박을 쓰고 태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자주적화업수

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나라들만 제거되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빼앗는데 유리한 조건이

자주적국방력을 풀어놓아 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자주적화업수

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나라들만 제거되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빼앗는데 유리한 조건이

자주적국방력을 풀어놓아 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자주적화업수

행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나라들만 제거되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빼앗는데 유리한 조건이

자주적국방력을 풀어놓아 다져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

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분쟁의 불길을 터뜨려 놓고 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군사적지배권을 세계적범위